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을 위한 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Constituents Analysis of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Space

김 선 애(Sun-Ae Ki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공간운영을 계획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기준과 권장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서관이 새로운 공간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FLA의 도서관 공간산출법, 호주의 NSW 도서관의회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공간운영기준 그리고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간운영 권장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운영권장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권장기준(안)은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장서공간, 이용자공간, 사무공간, 문화공간, 지원공간 그리고 선택적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각 개별 공간이 전체 도서관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장서공간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도서관의 건물사정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서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ing library space and it also reflects on developme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new library space. The methodology of estimating library space needs of IFLA, a guide for public library building in New South Wales of Australia, and the recommend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in French were analysed. The results given throughout these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re able to develop the guide for public library space in Korea. The guide suggested defines six broad types of library space: collection area, readers and library users, library staff, conference, meeting and cultural space, mechanical and support services, additional services areas. It is import to remember however that each library building and the service it provides is unique and should reflect the needs and aspiration of its community.

키워드: 공간구성, 공간운영, 공간운영기준, 공공도서관, 도서관공간

Space Management, Space Planning, Library Space, Public library, Library Space-Guideline

* 본 논문은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용역보고서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sa@ks.ac.kr)

논문접수일자 : 2008년 1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08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08년 12월 10일

1. 서론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던 도서관 업무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공간이 생겨났으며,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도서관 봉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간운영이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요구 행태 변화, 정보제공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간은 크게 도서관에서 정보원이 되는 모든 자료와 각종 정보기기 등이 차지하는 수장공간, 이용자들의 연구활동이나 여가, 문화활동 및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이용공간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각종 정보원과 기기를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은 정보자원과 더불어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물질자원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건물은 인간과 정보자료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외적으로는 해당 도서관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나타나야 하며 일반건물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내부구조도 자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 이용자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원들의 작업공간 등의 적절한 배치로 이용자와 구성원들의 동선을 줄여주고 서로 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초래된 정보중심 사회로의 변이로 인해 도서관은 근대적 형태에서 탈피하

여 정보의 디지털화와 하이퍼텍스트로 대변되어지는 정보소통의 열린 장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Mitchell 1999). 또한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자원을 보관·제공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지원 아래 양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보매체의 출현과 이들 정보를 보관·제공하는 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기능적, 공간적 프로그램은 일부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서비스나 시설환경 등 질적 인프라에 맞는 공간적 구성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을 답습하거나 혹은 과거의 설계지침을 모델로 권립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강훈, 노태학 최일 2006).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정보와 정보매체의 변화, 정보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변화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교육 및 정보의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심을 갖는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는 도서관 공간운영에 관한 외국의 기준들과 권장사항을 검토한다. 그리고 외국기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안)을 도출하여 도서관의 공간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공공도서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공간구성계획에 적용이 가능하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엔의 교육 문화전문기구인 UNESCO는 IFLA와 공동으로 1994년 최초로 공공도서관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봉사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목표와 우선순위 및 봉사내용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기준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도서관법』 제2조 4항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서는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표 1은 UNESCO/IFLA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 가진 본래적 목적, 즉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습득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불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예술관련 정보, 행사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2 관련연구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와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는 도서관으로

(표 1) 공공도서관의 역할

UNESCO/IFLA 선언	『도서관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독서습관의 형성과 증진 • 정규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주적 교육의 지원 •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성 자극 • 전통문화의 인식, 예술, 과학의 업적 및 혁신에 대한 인식 촉진 • 모든 공연예술의 문화적 표현과 접촉할 수 있게 한다. • 이 문화간의 교류 및 다양한 문화 공존 • 구전에 의한 전승의 지원 • 시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 지역의 기업 협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 정보개발 촉진과 컴퓨터 이용 능력발전 • 모든 연령층의 준 문맹퇴치 활동 계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 •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하여금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요구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과거와는 다른 건축계획과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도서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도서관 건물의 복합화와 관련된 연구들이다(이경문 2003; 양성원, 김억 2004). 은경원(2007)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복합화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복합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건축학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도서관이 복합건물로 건축될 경우 공간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2007)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복합공간에 대한 공간구성과 구성 체계 및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표준모형연구(한국도서관협회 1991)는 공공도서관 운영모형을 직제, 장서개발, 공중봉사, 시설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중 시설부분이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과 외곽시설 규모, 내곽시설규모와 공간배치에 관한 내용이다. 21세기의 공공도서관모형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 1998)는 앞서 진술한 연구의 업그레이드판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 장서, 직원, 문화활동 등을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모형을 구체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소도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공간구성 계획안을 제안한

연구(이인영 2004),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곽철완 2005),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서관의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차미경 2006), 그리고 최근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곽철완, 이정미 2005) 등이 있다.

3. 외국의 도서관 공간운영을 위한 기준 및 권장사항

3.1 IFLA의 도서관 공간운영 산출을 위한 방법 및 기준

IFLA에서는 도서관 건물 또는 건립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거쳐 2007년 『Library Building Guidelines: Developments & Reflections』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도서관건물은 기본적으로 대학도서관지만 관중에 관계없이 도서관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도서관 건축시 고려해야할 사항, 필요공간의 산출을 위한 고려요소, 이용자와 열람공간의 상관관계, 내부 사무공간의 산출 등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필요 공간 산출 방법론은 Dahlgren(2007)이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공간수요는 도서관의 미래 장서량과 서비스의 목적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가능하다. Dahlgren이 제시하는 방법론은 저자가

위스콘신주의 도서관관에 근무할 때 개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Public Library Space Need: A Planning Outline 1998』에서 이미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이 방법론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서, 자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도서관의 공간수요는 도서관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방법론은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나 특정자원의 보유와 관련된 목표를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표는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에 따라,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론은 도서관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몇 도구와 전략적 방법을 제안한다.

도서관 계획자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검토하고 범주화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공간을 산출하는 기초적인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 장서 및 도서관 자료를 위한 공간(collection and library materials)
- 열람자 및 이용자를 위한 공간(readers and library users)
- 직원을 위한 사무공간(library staff)
- 회합 및 프로그램 기능을 위한 공간(meeting and program functions)
- 다른 다양한 기능을 위한 공간(other miscellaneous functions)
- 기술 및 지원 서비스 공간(mechanical and support services)

3.1.1 장서공간

장서 및 도서관 자료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으로 수장공간 또는 장서공간을 의미한다. 장서공간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 자료의 규모뿐만 아니라 봉사대상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량에 관계되는 도서관서비스의 목적은 다음의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의 성장(변화)
- 지방 또는 국가의 도서관행정당국 또는 전문단체의 표준 또는 기준
-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의 인가요청
- 도서관의 장서증가율(전체 장서증가율 + 구입에 의한 순수 장서증가율 모두)
- 동료(경쟁) 또는 표본 도서관들과의 비교
- 지방 또는 지역사회의 전통 및 기대

이들 요소 외에 장서공간 산출을 위한 물리적 요소로서 장서의 유형, 즉 도서, 연속간행물, 오디오비디오자료, 전자자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즉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원 그리고 특수장서 등에 따라 공간 산출에 대한 방법론이 상이하다. 자료의 유형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서가의 배가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넓이가 0.9m인 높은 서가(높이 2.1m)를 사용하여 도서를 배가한다면 m^2 당 수용권수가 140권이다. 그렇다면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필요공간 산출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m^2 에 전체 도서를 140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된다. 만약 높이가 1.6m이고 폭이 1.2m인 낮은 서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단면서가를 사용

하여 도서를 정리할 경우, 당연히 m^2 당 수용 도서는 적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필요공간 산출은 전체도서를 140이 아닌 100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가능하다.

연속간행물의 수장공간은 신간자료의 배가를 위한 공간과 제본된 자료를 수장하기 위한 서가배가유형이 상이함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간자료의 배가를 위한 공간은 주로 단면전시서가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m^2 당 10종이 배가될 수 있다. 제본자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산출을 위해서는 제본되는 연속간행물의 종수와 평균적으로 매년 발간되는 자료의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속간행물 제본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은 $1m^2$ 당 20종정도이다. 연속간행물의 제본자료는 매년 누적되므로 연속간행물의 평균 구독연수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필요공간을 산출할 수 있다.

비도서자료는 콤팩트디스크, 오디오 카세트, 레코드 오디오북(CD 및 카세트), DVD 그리고 비디오카세트레코드와 같은 미디어를 포함한다. 비도서자료의 보관을 위한 필요공간은 사용하고 있는 보관방식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어떤 도서관들은 비도서자료의 보관을 위해 전통적인 배가방식을 사용한다. 이 배가방식의 장점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만 계속적으로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떤 도서관들은 비도서자료의 매체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가구를 사용하여 아이템별로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배가한다. 이 배가방식은 마케팅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들 자료에 대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다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 두 방법을 절

충하는 방법 즉, 비도서자료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커버를 제거한 상태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비도서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며, $1m^2$ 당 120개의 아이템을 수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 보관전략을 보다 중요시 할 것인지 디스플레이를 더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배가하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1m^2$ 당 아이템 수는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전자정보자원은 이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장서의 중요한 부문이 되었다. 전자자원 자체는 거의 혹은 전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들 자원에 접근하는데 공급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스태이션, 이들 시스템들에 요구되는 설비 등 도서관의 서비스와 공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최근 전자자원의 이용도와 컴퓨터 및 기타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의존하고 있다. 도서관장서의 다른 유형의 사례에서처럼, 이용자들의 전자자원이용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스태이션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은 다양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간할당은 스테이션을 서서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앉아서 이용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가적인 설비 - 스캐너, 복사기 등 - 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유형 - 소형, 평면 모니터 등 - 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의한 변화를 인지하고, 각 컴퓨터 네트워크스태이션에 요구되는 필요공간은 설치되는 스테이션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스테이션의 설치규모가 중규모, 즉 터미널의 설치규모가 최대 50대 정도일 경우, 각 터미널은 대략적으로 $4.0m^2$ 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설치규모가 중규모 이상

으로 50대 이상의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각 터미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대략적으로 3.250m²가 소요될 것이다.

3.1.2 이용자 공간

열람자를 위해 요구되는 열람석의 수와 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이용자의 유형과 도서관의 특별한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술연구도서관은 도서관장서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열람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열람석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열람석, 테이블이 있는 열람석, 사각형 테이블, 라운지용 의자가 있다. 일부 주나 국가의 도서관당국 혹은 협회는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열람석수에 대한 기준 - 예를 들면, 시간당 도서관방문자수의 40% - 을 제안하고 있다.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열람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자원의 이용행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열람석 수가 만원인지 혹은 거의 만원지인지를 측정함으로써 필요한 열람석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열람석 공간이 열람석의 특정 유형 - 테이블이 있는 열람석, 일반열람석, 어린이용 열람석, 성인용 열람석 등 -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열람석 한 개당 대략적 평균 소요면적은 3.00m²가 요구되며,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열람석수에 이 면적을 곱하게 되면 필요면적에 대한 대략적 수치를 구할 수 있다.

3.1.3 사무 공간

도서관 직원을 위한 공간은 크게 두 가지 범

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용자서비스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도서관직원들의 행정업무와 지원업무가 수행되는 작업공간과 사무실이다.

직원을 위한 사무공간의 필요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내의 작업공간 혹은 스테이션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는 직원의 규모가 늘어나면, 작업공간이나 스테이션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규모와 관련이 있다. 전체 도서관직원수와 도서관내에 필요한 작업공간 혹은 스테이션 수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작업공간 혹은 스테이션은 동료 직원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이용자서비스 안내대이다. 어떤 워크스테이션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되거나 설계될 수도 있다.

직원들의 작업공간 혹은 워크스테이션의 수에 대한 정의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필요공간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업공간당 10.00m²와 12.50m²가 사용될 수 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작업공간당 12.5m²를 적용하고 보다 큰 도서관에서는 사무실 및 직원을 위한 공간 배치가 경제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작업공간당 10.00m²를 적용할 수 있다.

3.1.4 회합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많은 도서관은 프로그램 진행이나 회합장소로서의 문화공간이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

회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회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가 도서관을 찾은 학급이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은 직원이 학술자료 활용교육이나 컴퓨터 활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회합이 도서관의 역할의 일부분이 아닌 도서관은 이러한 공간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회합 및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공간은 회합의 유형, 필요한 회합룸의 수, 그리고 각 실의 수용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되 개별도서관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다. 실의 유형은 강의 또는 발표 공간, 회의 공간, 교육공간, 기타 만남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강의 또는 이벤트 공간은 영화가 상영될 수도 있고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자는 고정식의자 혹은 이동식의자가 설치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수용인원이 결정되면 의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정식의자라면 의자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1.25m²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1.0m²를 적용한다. 회의 공간, 교육공간 및 기타 공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필요공간을 산출하되, 공간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가감할 수 있다.

3.1.5 도서관의 다른 다양한 기능을 위한 공간

기타 도서관 기능을 위한 공간은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잡다한 기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소규모그룹의 공부방, 복사실, 도서관 선물가게, 카페, 또는 식당 등을 포함한다. 기타 도서관 기능을 위한 공간

은 종종 전체 건물면적의 10% - 15%사이라고 보고된다. 이 공간의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에 필요한 공간들, 즉 장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문화공간 등을 나열한 후, 이들 공간의 수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전체 공간의 수가 6개라면 건물면적의 대략 10%를 도서관의 기타 공간으로, 5개라면 기타공간의 면적은 전체 건물의 12%를, 그리고 4개라면 기타공간의 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의 15%를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3.1.6 기술 및 지원 서비스 공간

도서관이 단독건물이라면 기계설비실, 구조적 공간(벽, 기둥 등), 휴게실,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들 공간은 전체 빌딩 면적의 20%에서 25% 그리고 30%,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에 할당된 공간과 비할당된 공간간의 균형은 디자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수치로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전체면적의 75%를 할당공간으로 유지하려면 비할당된 공간은 전체 건물의 25%를 사용하게 된다. 비할당된 공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기타 기능을 위한 공간 산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앞서 진술한 도서관에 필요한 공간의 수를 산출한 후 그 요소를 사용한다. 만약 공간의 수가 4개라면 전체건물의 20%를, 3개라면 전체건물의 25% 그리고 2개라면 전체건물의 33%를 배정한다.

3.2 호주의 NSW Library Council의 공공도서관 공간운영기준

호주의 The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을 위해 2000년에 『People place』를 처음 발간하였다. 이후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개정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0년 이후에 건설된 6개 도서관 건물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거쳐 2005년 『People place』 제2판을 발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Metropolitan Public libraries Association, NSW(MPLA), Country Public Library Association of NSW(CPLA), Council of representative, The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은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수행되었다.

공공도서관 건물의 공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래의 공공도서관 건물이 갖추어야 할 공간적 의미를 정의하였다. 미래 공공도서관의 건물은 i)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적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하며, ii)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중 복합화 공간이어야 하며, iii) 친숙하고 쉬운 방법으로 최신의 정보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iv) 휴식, 연구, 여가 그리고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이용자의 광범위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v) 서비스의 제공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vi)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협력적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호주의 NSW도서관의회가 제시하는 공간

산출방법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크(Benchmark)기법으로 도서관의 봉사규모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를 고려한 특정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도서관의 목표장서수와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주요기능을 기준으로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필요공간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영역과 함께 서비스의 수준에 바탕을 둔다. 공공도서관의 전체 공간을 기능에 따라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미래의 수요와 서비스의 유형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구분된 공간을 살펴보면, Collection Area는 장서공간으로 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보관하고 배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는 도서관 건물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이 된다. Reading and Study Areas은 이용자 열람공간으로 이해되며, Resource Areas은 복사기, 프린터 등 도서관의 기계, 비품, 설비 등을 비치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Staff Areas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직원들의 행정적인 지원업무가 수행되는 작업공간이며, Amenities은 공용 공간 및 기술적 지원업무 공간이며, Optional Additional Service Areas는 도서관에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선택적·부가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 스토리텔링공간, 장난감 실, 특수자료보관실, 특수매체보관실, 휴게실, 다목적 공간 등이 포함된다.

호주의 NSW도서관의회에서 제시하는 도서관 전체 건물면적(GFA: Gloss Floor Area)에 대한 산출방법을 보면, 건물전체면적은 도서관의 목표장서지수(Target Collection Factor, TCF)에 상대적 공간지수(Relative Area Factor,

RAF)를 곱한 값이다. GFA는 전체 도서관 건물면적을 나타내며, TCF는 목표장서지수로서 자료의 유형에 따른 필요 공간 산출로 얻을 수 있는 값이다. 그리고 RAF는 상대적 공간지수로서 장서공간 대 기타 공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장서공간을 기준으로 장서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간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건물면적 산출 공식: $GFA = TCF \times RAF$

(그림 1) 도서관 건물 전체 건물면적 산출 공식

이 방법론에 의하면 도서관의 전체건물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도서관에서는 목표장서지수(TCF)를 도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유형에 따른 소장현황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장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개별도서관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고자 하는 목표장서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전체 도서관 건물면적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요소이다. 목표장서지수(TCF)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표 2과 같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표준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도서관은 자료의 유형별 소장현황과 유형별 목표장서수를 대입하여 목표장

서지수(TCF)을 산출할 수 있다.

목표장서지수(TCF)를 산출했으면, 상대적 공간지수(RAF)를 알아야한다. 상대적 공간지수는 장서공간 대비 기타공간에 대한 면적 비율을 의미하므로 기능에 따라 구분한 공간영역을 사용한다. NSW도서관의회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기능에 따라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장서공간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표6 참조). 장서공간을 기준(100% 혹은 1)으로, 장서공간을 제외한 기타공간, 즉 학습 및 열람공간, 비품공간, 사무공간 그리고 공용 및 기술지원 공간이 장서공간과 동등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들 공간을 상대적 핵심영역공간이라 명명하였으며, 장서공간 대비 장서공간을 제외한 상대적 핵심영역 공간을 동일하게 할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간별 적정 비율을 살펴보면, 열람공간은 장서공간의 30%를 적정공간으로 배정하고, 비품공간은 장서공간의 15%, 사무공간은 장서공간의 35% 그리고 공용 및 기술적 지원업무를 위한 공간은 장서공간의 20%를 적정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적·부가적 서비스 공간은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부가적 서비스 영역을 적정비율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

(표 2) 목표장서지수(TCF) 산출방법

TCF 산출	표준면적
일반 도서(권)	1m ² 당 100 권
연속간행물(종)	1m ² 당 10종
비도서자료(테이프, CD-ROM, DVD 등)	1m ² 당 100점
전자자원(검색대 수)	5m ² 당 검색대 1대
합 계	TCF(목표장서지수)

이벤트 공간이라든가, 청소년, 혹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특수장서를 위한 공간 등은 선택적·부가적 서비스에서 제고하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 공간은 개별 도서관에서 제고하는 있는 선택적·부가적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개별 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공간 5개 영역과 부가적·선택적 서비스 중 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전체 건물면적과 공간영역별 필요공간을 산출할 수 있다 (표 3 참조).

(표 3) 장서공간 대비 기능별 필요공간 산출

기능별 영역	기준 영역
1. 장서공간(Collection Area)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	기준 영역 100%
2. 열람 및 학습 공간(Reading and Study Areas) 미팅, 회합 영역 학습 영역 브라우징,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10% 15% 5%
3. 비품공간(Resource Areas) 목록관련비품, 복사기 등 제본기, 전화 등	10% 5%
4. 사무공간(Staff Areas) 서비스 데스크 사무작업공간 보관소	15% 15% 5%
5. 공용 및 기술지원공간(Amenities) 홀, 로비, 복도 등 화장실, 휴게실, 보관소 등 시설장비, 정비	10% 5% 5%
	Core Relative Area Factor 200%
6. 선택적·부가적 서비스공간(Optional Additional Service Areas) 어린이를 위한 스토링 텔링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특별장서 공간 특수룸 지역 그리고 가게 역사 공간 다목적공간, 교육훈련공간, AV 룸 복합, 커피샵 장난감도서관 커뮤니티, 은행 서비스 기록물관리수장공간 이동도서관서비스 공간 중앙 또는 지역 작업공간 중앙 또는 지방 커뮤니티 사무실 기타(자관의 사정에 따라 추가 공간)	5-10% 5-10% 5-10% 10-15% 20-25% 10-15% 10-20% 5% 5% 5% 5%
전체 상대적 공간지수(Total Relative Area Factor) (Core RAF + 선택적 영역)	Total Relative Area Factor - RAF

3.3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공간운동을 위한 권장기준

프랑스에는 도서관의 관중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규모 혹은 도서관의 역할 등에 따라 도서관 건물규모, 장서규모, 시설규모 등을 제안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즉 봉사대상규모에 따라 도서관이 구비해야 할 장서수, 시설, 열람석수, 건물 면적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기준이 없다. 대학도서관을 예로 든다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수에 따른 장서수, 열람공간 및 좌석수 또는 면적 등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이나 기준은 없다.

게다가 프랑스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막론하고 도서관을 신축 또는 개축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서관 행정당국으로부터 도서관의 공간운영 및 건물의 규모와 관련하여 요구받는 의무사항 또는 강제사항 같은 실제적인 건설표준 또한 없다. 도서관 시설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사항은 의무사항이나 법적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권장사항으로 Brisbrouk가 제안하고 관련행정당국이 승인한 대학도서관 운영 관련 권장사항이 있다.

Brisbrouk는 1992-2000년 동안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건물과 공간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하였다. 권장사항의 내용을 보면, '대학도서관은 최소 150,000권의 장서를 소장해야한

다.' '열람석은 학생 10명당 1석, 또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5-6명당 1석은 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 1명당 표면적은 1.50m²를 권장한다' 등으로 대략적인, 말 그대로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1m²란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실정인데, 학생 1명당 1.50m²란 기준은 그야말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학생 1인당 면적을 국가 평균 수치인 0.70m²를 보다 더 타당성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도서관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행정당국차원의 권장사항들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용가능한 면적은 봉사대상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0.1m²를, 열람석은 인구가 20,000보다 적은 도시의 경우 인구1명당 0.009를 그리고 인구가 20,000보다 많은 도시의 경우 인구1명당 0.007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관을 있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 중 한곳에는 성인실과 이동실을 구분하지 않을 것 등과 같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권장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표 4는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에 의해 제안된 대학도서관의 공간운용에 관한 권장사항이다. 신축도서관 건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과 관련된 권장사항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공간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은, 우선 도서관의 공간을 크게, 접견영역,

전시/회의공간, 열람영역, 보존공간, 내부공간 및 장비실로 구분하였다. 접견영역은 도서관로비, 화장실, 안내대, 대출대 등을 포함한 공간이며, 열람영역은 이용자들을 위한 열람공간,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의 장서를 위한 서가공간 그리고 복사기 설치공간과 교육실을 포함한다. 내부공간은 직원들의 작업공간을 말하며, 장비실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공간을 의미한다. 각 공간의 필요면적 산출을 위해 고려된 요인을 살펴보면, 열람공간의 경우는 열람석의 유형에 따라 소요면적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서가공간의 경우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서가의 유형에 따라, 자료의 이용정도에 따라 상이한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보존서고의 경우는 서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면적을 제시하고 있고, 사무공간의 경우는 직원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직원수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4. 도서관 공간운영 기준 비교

4.1 도서관 공간에 대한 정의

도서관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IFLA의 권장 기준, 호주 New South Wales의 도서관의회(Library Council)가 제시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기준,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에 의해서 제안된 대학도서관 공간운영 권장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기준들이 도서관의 필요공간을 산출함에 있어 도서관의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비교하였다(표 5 참조). 도서관의 공간은 관중에 관계없이 6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관중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IFLA에서 제시한 공간에 대한 정의와 프랑스에서 제시한 공간구분에 차이가 없다. 두 곳 모두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장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회의·전시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기술/지원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을 제안하는 호주의 NSW 도서관의회의 경우는 장서공간, 열람 및 학습공간, 비품, 설비공간, 사무공간, 기술/지원공간 및 부가적·선택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부가적·선택적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핵심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핵심영역이란 도서관의 규모, 역할, 이용자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핵심영역이외 공간인 부가적·선택적 공간은 개별 도서관이 봉사지역의 특성, 도서관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관중을 불문하고 도서관 공간의 핵심은 장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회의/전시/교육 프로그램공간, 및 지원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나머지 선택적 공간 또는 기타 공간은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부가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4.2 도서관의 영역별 공간비율

외국의 도서관의 공간운영 기준들과 권장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물면적대비 각 공간의 영역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제시하는 기준들 간에는 도서관공간정의에서와 같은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시설관

〈표 4〉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의 공간운영을 위한 권장기준

공간유형	공간당 필요면적	비고	비율(%)
접견 영역 공공 부문 √ 로비 √ 화장실 직원 부문 √ 안내대 √ 대출대 전시공간 회의공간 열람영역 열람공간 √ 단독열람 √ 열람공간 + 컴퓨터단말기 √ 개별공부방 √ 오디오/비디오 시설이 있는 열람석 √ 비규격자료를 위한 열람석 √ 소규모 작업실 서가공간(접근가능) 일반자료 √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 10,000개의 품목을 위한 공간 m ² 당 품목수 √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10,000개의 품목을 위한 공간 m ² 당 품목수 체분된 연속간행물 √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 √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공간당 필요면적 공공접근공간의 5% 화장실 1개당 3.5m ² 워크스테이션 1대당 15m ² 워크스테이션 1대당 15-20m ² 최소 60m ² 대학의 시설에 따라 변화 1인당 2.70m ² (평균) 1인당 3.50m ² (평균) 1인당 4.30m ² 1인당 4m ² (평균) 1인당 3.50m ² (평균) 1인당 2m ² 3.5 까지 1m/m ² 107 m ² 88 -100 자료 5.5-6 1m/m ² 58 m ² 165-180 “일반자료” 참고 “일반자료” 참고	비교 공공접근공간 = 자료 + 열람석 + 화장실 열람석 1.200석 미만의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3개의 열람석 당 1m ² 의 기준 적용 60개의 워크스테이션 당 1 화장실 이 기준은 조직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음 이 기준은 조직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음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변화 테이블사이의 통로: 각 방향 당 0.80 m 4인 열람석은 1인당 2.50m ² ; 2인 열람석은 1인당 .40m ² 작업면적: 1m * 0.7.m 안내대 = 1.50m * 0.80 m. 4인 열람석은 1인당 3.70m ² ; 2인 열람석은 1인당4.40m ² 4인 열람석은 1인당 3.40m ² ; 2인 열람석은 1인당4.20m ² 작업면적: 1.20m * 0.90m. Room without documents 1m당 25 아이템: 서가단위당 5-6단 배가; 서가사이 통로: 1.80m 1m당 30 아이템: 서가단위당 5-6단 배가; 서가사이 통로: 1m 1년 구독종수= 평균 4종(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라 상이)	+25% +25% +25%(평균) 소규모공간들 (소규모실, 개 인실, 복사실) 을 위해서는 +30% 또는 +40% 조정 +25%(평균) +25%(평균)

〈표 4-1〉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의 공간운영을 위한 권장기준(계속)

공간유형	공간당 필요면적	비고	비율(%)
연속간행물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 1,000종 수용공간 1m2 당 연속간행물 종수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1,000종 수용공간 1m2 당 연속간행물 종수	2 lm/m2 125m2 8 종 85m2 12 종	잡지전시보관함; 서가단위당 4단 배가; 사이 통로 = 1.80m 잡지전시보관함; 서가단위당 5단 배가; 사이 통로 = 1m	+25%(평균)
복사 ✓표준 복사기 ✓복사기 가상정보연구실(교육실)	복사기 1대당 9m2 복사기 1대당 7m 열람석 1대당 4.5m2	복사기의 수는 예상되는 도서관 이용저수에 따라 상이; 복사기 공간은 기계를 위한 보조테이블 공간을 포함함	+35% + 40%
보존 일반보존 ✓10,000 품목을 위한 공간 ✓1m2 당 품목수 밀집서가를 이용한 보존 ✓0,000 품목을 위한 공간 ✓1m2 당 품목수	7.5-8 lm/m2 36-38m2 263-280권 12-12.5 IM/m2 23-24m2 420-438 권	1 linear metre당 35권 서기당 평균 6단 배열; 서가사이 통로 = 0.75-0.80m; 서가사이의 중앙통로: 1.60m 서기당 평균 6.5단 배열; 6개 서기당 0.90m의 폭조절 가능한 통로	+20%
내부 부문 사무공간 공용지역(회의실, 주방, 복사실, 비품품창고, 보관실, 화장실, 세면실 등)	1인당 15m2 1인당 10-12m2 1인당 5-6m2 1인당 7m2 1인당 6m2	전일 사서직(수서, 목록 등) 전일 행정직(총무, 인사, 비서, 등) 파트타임 직원, 기능직 직원수 15명 까지 직원수 15명 이상	+40%(평균)
장비실		건물 유지 관리: 이 공간은(보일러실, 냉난방 및 환풍 중앙장치실, 안전실 등) 건물의 이용가능한 공간의 5-10% 할당	+40%

(표 5) 도서관 공간정의에 관한 기준간의 비교

대상	IFLA	호주, NSW*	프랑스**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간정의	장서공간 열람자/이용자공간 사무공간 회의/프로그램 공간 기타기능공간 기술/지원공간	장서공간 열람 및 학습공간 비품공간 사무공간 공용 및 기술/지원공간 부가적·선택적 공간	접견(공용)공간 회의/전시공간 열람공간 장서공간/보존공간 내부공간(사무공간) 기술/지원공간

* 호주, New South Wales의 도서관의회(Library Council)에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기준

**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에 의해서 제안된 대학도서관 공간운영 권장사항.

런 기준을 살펴봐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대상 인구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한다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최소 990㎡의 건물면적을 확보하면 되지만, 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1,850㎡에서 최대 3,750㎡를 건물면적을 확보해야한다. 표 6은 IFLA, 호주 그리고 프랑스의 도서관 공간운영기준과 권장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물면적 대비 영역별 비율을 비교하였다. IFLA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일부 공간은 개별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한 반면, 일부 영역은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공간 산출시 고려해야할 요소와 그에 따른 산

출면적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표에서는 공간별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만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러 개의 영역 중 장서공간의 비율이 전체 도서관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났으며, 건물면적대비 35-50%를 할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무공간은 건물면적대비 15-17.5%를, 열람공간은 15-19%를, 지원공간은 10-25%를, 기타공간은 7-15%를 그리고 회의, 전시 등 문화적 공간으로는 10-16%를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건물면적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서공간산출이다. 전체건물 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

(표 6) 건물면적 대비 도서관 공간비율 비교

국 가	장서공간 비율	열람공간 비율	사무공간 비율	문화적 공간 비율	기타(비품) 공간 비율	지원/공용 공간 비율
IFLA				-	10-15%	20-25%
호주, NSW*	50%	15%	17.5%	+10%	7.5%	10%
프랑스**	+35%	17-19%	+15%	+16%	7-10%	10-13%

* 호주의 NSW 도서관의회의의 건물면적대비 개별 공간의 비율은 원래 200%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다른 기준들과의 비교를 위해 100%를 기준으로 다시 수정한 값임.

**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의 건물면적대비 개별 공간의 비율은 원래 300%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다른 기준들과의 비교를 위해 100%를 기준으로 다시 수정한 값임.

을 차지하는 장서공간이 산출되면, 필요한 전체 건물면적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별공간에 대한 면적 또한 산출이 가능하다. 장서공간을 산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장서수이다. 현재의 소장 장서량이 아닌 향후 도서관이 목표하는 장서규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향후 필요한 장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서량의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목표장서수의 결정을 위해서는 봉사대상인구의 변화, 도서관의 장서증가율, 경쟁 또는 표본도서관들과의 장서량 비교, 지역사회의 특성, 출판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5.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을 위한 권장기준(안)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영역별 정의가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자료 및 설비, 제공서비스, 운영 및 관리, 부대시설 및 환경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만족도 관련 연구들(오동근 2005; 김선에 2006)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정보자원, 제공서비스, 이용시설/열람환경, 직원의 전문성 및 태도 그

리고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평가영역으로 장서, 직원,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및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외국의 공간운영 기준들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의 공간정의 사례와 공공도서관 평가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한 영역을 종합·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을 다음의 6개의 영역으로 정의한다.

- 장서공간
- 열람공간
- 사무공간
-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
- 지원/공용공간
- 기타 선택적 공간

이 공간정의의 특징은 언급한 외국사례들처럼, 도서관 경영의 3요소인 장서, 시설, 사람을 위한 공간을 기본으로 하여 장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지원/공용공간을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및 시민강좌 등을 반영하여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였다. 이는 봉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이 지닌 특수 목적 및 임무 등에 따라 개별도서관이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은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공간이며, 지원/공용공간은 비품을 보관하는 공간과 안내,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을 포함한다. 기타 선택적 공간은 스토리텔링공간, 기록물관리공

간, 특별장서공간, 장난감 도서관 등과 같이 위 영역에 포함되기 힘든 공간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공간이 확정되었으면, 개별 공간이 도서관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별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의 공간운영현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실태는 분명 외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국립중앙도서관,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전체 건물면적의 49.85%를 이용자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용자서비스 공간의 범위는 일반열람실, 주제자료실, 전시실, 강당, 세미나실, 연구실, 회의실, 강습실, 장애인실, 노인실, 어린이실, 유아실, 수유실 등이다. 반면 수장공간은 전체 건물면적의 9.3%였으며, 사무공간은 9.75%였다. 물론 이용자서비스 공간에 장서공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공간, 즉 주제열람실, 어린이실 등이 포함되긴 했어도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장서공간이 이용자열람공간의 기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 실태조사결과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운영 권장 기준(안)을 표 7과 같이 제안한다. 앞서 정의한 영역별 공간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장수치를 제시하기보다 호주의 NSW 도서관의회의와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이 제안하는 것처럼 개별 공간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개별 공간 산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요소를 제시하였다. 6개의 영역 중 장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 그리고 지원/공용공간을 모든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들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로 하였다. 그리고 기타 선택적 공간은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하며 필요한 면적만큼 추가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장서공간 비율 35%이상은 외국사례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의 최저선이다. 국내 실태조사를 참고했을 때 외국권장기준인 4-50%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저 권장기준인 35%를 제시한다. 이 기준도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기준이다. 장서공간을 외국사례의 최저 기준을

(표 7)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운영 권장기준(안)

대상	건물면적 대비 공간별 비율 권장(안)		산출시 고려요소	
	공공도서관	비율(%)	공공도서관	
공간 구분	장서공간	+35	100	자료유형, 서가유형, 재질, 배가방식 등
	열람공간	30		열람공간의 유형, 열람석 수, 유형 등
	사무공간	+10		직원업무유형, 직원수, 컴퓨터 유형 등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	+10		공간 수 및 유형, 수용인원, 의자유형 등
	지원공간	+15		기계 장비 등의 수 및 유형 등
	기타 선택적 공간	선택적 사용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은 선택의 여지없이 일반열람실 공간을 일정비율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요구를 외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장서공간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열람공간의 비율은 외국사례들에서 권장하는 기준치 15-19%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람공간의 비율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인 30%를 수용하여 최대 30%를 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사무공간의 비율은 외국사례 권장기준 15-17%를 반영하고 싶었지만, 이용자 열람공간의 이상비대를 감안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7.95%의 개선시킬 수 있는 기준이면서 최저기준이라 할 수 있는 10%이상을 권장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원공간비율은 외국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건물면적의 15%이상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전시, 회의, 교육 및 문화공간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열람공간의 비율을 생각할 때 전체 면적에서 이용자서비스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 기준인 10%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개별도서관의 전체 건물 면적은 이들 5개 영역의 공간면적에다 기타 선택적 공간을 추가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외국의 도서관 공간운영기

준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에 활용할수 있는 권장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의 도서관 공간운영 기준으로는 IFLA의 2007년판 도서관 공간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대학도서관의 공간운영기준, 호주의 New South Wales의 도서관의회(Library Council)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공간운영기준과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이 제안하는 대학도서관 공간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들 기준들은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관중이 상이하고, 지역이 상이하고, 필요공간을 산출하는 방식이 상이하지만, 도서관의 공간을 정의하는 관점과 각 영역에서 필요한 공간을 산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의하는 관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공간운영에 관한 외국기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의 공공도서관 공간운명을 위한 권장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권장기준(안)은 구체적 수치로 된 영역별 기준면적이 아니라 전체 건물면적대비 공간의 유형별 배분 비율과 각 영역의 공간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장서공간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비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안)은 도서관 건축시 건물면적 산출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비록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목표장서수와 표준면적만 있다면 전체 건물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준이 되는 장서공간을 산출할 수 있다면 나머지 영역은 비율로서 대략적인 필요면적산출이 가능하다. 장서공간의 산출은 자료유형별 목표장서수와 자료의 유형별 표준

면적만 있으면 된다. 표준면적이란 서가유형에 따라 자료유형에 따라 1m² 당 수용가능 권수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료의 배가기준 즉, 서가당 수용용량이 고려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외국 기준분석을 통한 사례조사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본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문헌적조사를 통한 잣대만으로 만들어진 공간운영권장기준(안)이라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향후과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현황 실태조사, 도서관의 규모와 유형별 모범사례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규모와 유형을 반영한 보다 현실성 있는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권장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철완. 2005.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49-167.

곽철완 · 이정미. 2005.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어린이 부모의 의식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55-176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선애. 2006. 공도서관 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193-208.

김정희. 2007.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植松貞夫 著. 2005. 『도서관건축의 이해』. 김호숙 옮김. 서울: 한국디지털포럼.

양성원 · 김억. 2004. 상대주의 공간개념을 적용한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 커뮤니티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4(2): 283-286.

오동근. 2005.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61-78.

은경원. 2007. 『공공도서관의 복합화경향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의 다원적 기능과 공간의 적응』.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이경훈. 2003. 『건축물 성격변화를 통해 본 현대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이인영. 2004. 『공공도서관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정미 · 광철완. 2005.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어린이의 연령 단계별 공간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77-198.
- 정강훈, 노태학, 최일. 2006. 사회적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26(1): 333-336.
-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한국도서관협회. 1991.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헌정보학회. 1996.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연구』. 서울: 한국문헌정보학회.
- Bisbrouck, Marie-Francoise 2007. The Notion of “Standard Surface Area” and Construction of French Libraries. (in IFLA Library Building Guidelines: Developments & Reflections, edited on behalf of IFLA by Karen Latimer and Hellen Niegaard) Munchen: K.G. Saur.
- Dahlgren, Anders 2007. A Practical Means of Estimating Library Space Need. (in IFLA Library Building Guidelines: Developments & Reflections, edited on behalf of IFLA by Karen Latimer and Hellen Niegaard) Munchen: K. G. Saur.
- Dewe, Michael. 2006. Planning Public Library Buildings: Concepts and Issues for the Librarian. Aldershot: Ashgate Pub.
- Gill, Philip. 2003.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Latimer, Karen & Niegaard, Hellen. 2007. *IFLA Library Building Guidelines: Developments & Reflections*. München: K. G. Saur.
-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05. *People Places: A Guide for Public Library Buildings in New South Wales*. Sydney: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 McCabe, Gerard B, Kennedy, James R. 2003. *Planning the Modern Public Library Building*.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Mitchell, William J. 1999. 『비트의 도시』.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 Zurko, Edward Robert. 1997.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 윤재희, 지연순 역. 서울: 세진사.

